

하늘 바람 별 그리고 학

이 반 원작

윤동주 시인을
만나러 오는 길은
외면하고 살았던
'내 안의 거울'을
닦으러 오는 길입니다.

■ 일시 : 2015. 11. 19(목) ~ 22(일)

■ 장소 : 드림시어터

■ 주최 · 주관 : 송대극회 송대극회 동문회

■ 후원 : 송실대학교 총동문회 KDB산업은행 동적구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운동주 시인을 만나러 오는 길은
외면하고 살았던 '내 안의 거울'을 닦으러 오는 길입니다.

2015년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에 송대극회의 50주년을 기념하며,
이반 작가의 원작 <하늘 바람 별 그리고 학>을 올립니다.

운동주 시인은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찍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합니다.
저마다 가슴 한 구석에 부끄러움을 지니고 사는 우리들...
시인처럼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 보는 일을
그만 잠시 잊고 살았던 우리들...
하지만 시인의 <서시>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연극을 드립니다.

창작예술의 산실이며 문화예술인 양성소, 송대극회는

송실대학교의 118년 역사 속에서

평양 송실대학교 출신 문화예술계 선배님들의 이름은 고스란히 '대한민국 예술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서울 송실대학교 시대에는 송대극회가 그 맥을 잇고 있습니다.

1921년~1923년 평양 송실

연흥 소인극 '절세영웅 나폴레옹의 말로'

대비극 '노예의 탑' 외

1965년~2015년 10월 현재 서울 송실

- 제1회 대학연극제 최우수연출상, 최우수연기상 수상(참가작 '에쿠우스')
- 정기공연 86회(동문합동공연 6회 포함)
- 신입생환영공연 : 29회
- 워크샵 공연 : 4회
- 채플 연극 예배 : 10회
- 총 129회 공연

동문합동공연의 문화를 꽃피우다!

- 졸업 동문의 재학생 멘토링을 통한 지속적인 예술인력 발굴
- 끈끈한 송대극회 동문회를 통한 재학생 의욕 고양
- 동문합동공연을 통한 세대 간 어우러짐과 전문적인 공연프로덕션 체험

송대극회는

1921년 평양 송실대학에서의 <절세영웅 나폴레옹의 말로>로부터 출발하였으나,

폐교와 전쟁으로 1965년 11월 20일 서울송실대학에서 황석영 작<폐궁으로 돌아오다>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슬픈 현대사 속에서 두 개의 창립년도를 가졌지만, 그 두 번 모두 첫사랑이며 결코 소멸될 수 없는

연극사랑의 상징입니다.

제작의 글



앞으로의 50년을 더욱 다지는 송대극회가 되겠습니다.

송대극회 동문회장 **황명식**(전기공학, 88학번)

방금 맞이한 듯 하던 가을이 어느덧 무르익고 겨울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계절이 빨리 흘러가듯 저희 송대극회도 벌써 50년이 흘렀습니다. 10년이면 변한다는 강산이 다섯 번이나 바뀔 법한 세월이지만 송대극회는 변하지 않는 본질인 '사람과 사람의 마음'으로 이 세월을 채워왔습니다. 참 오랜 시간 동안 송대극회를 이어온 동문 선배님, 그리고 선배님들의 뜻을 함께해 온 후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송대극회는 연극 분야 외에도 사회의 각 분야에 많은 인재를 배출하고 지금도 송실대학교의 발전과 연극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뒤에는 끊임없이 도전하는 송대극회의 정신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송대극회는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그리고 전통을 아끼는 정신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정신을 버리지 않는 송대극회가 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송대극회 동문회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기념공연 뿐 아니라 또 하나의 역사적 발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100년 넘는 송대극회의 발자취를 담으려고 홈페이지를 기획, 제작한 것입니다. 무대라는 시간과 공간으로 만드는 창작작업을 웹이라는 무한 공간에 영원성을 담아서 보존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실입니다. 정보의 소통을 넘어 또 하나의 창작 영역으로 가꾸어 나갈 것입니다.

금회공연은 50주년을 기념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50년을 더욱 다지는 송대극회의 뜻 깊은 작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송대극회를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께 앞으로 더욱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다짐하는 송대극회 50주년 기념공연에 관객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번 공연에 힘써주신 선배님, 재학생 여러분의 노고에도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송실대학교 총동문회장님을 비롯한 학교 당국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송실대학교 동문 인재를 배출하고 극예술을 선도하는 송대극회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바랍니다.

축하의 글



동문합동공연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송대극회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심영복 송실대학교 총동문회장

송대극회 창단 50주년 기념공연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1회 대학연극제 최고상 수상을 비롯 동문들의 왕성한 연극 영화 방송활동을 통해 더욱 약진하고 있는 송대극회가 50주년을 맞아 이반 교수 작 <하늘 바람 별 그리고 학>을 동문합동공연을 올리는 것은 우리 송실대학교 총동문회 내부의 경사입니다.

1897년 미국선교사 베어드박사가 설립한 송실대학은 실사구시를 통해 근대화의 꿈을 실현하고자하는 시민들의 모금으로 평양에 세워졌고, 윤동주 시인이 겪었던 바와 같이 일제 신사참배 거부로 자진 폐교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1954년 서울에 재건하여 오늘까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정치, 사회의 민주화는 물론 문화 예술 분야의 발전을 이룩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평양송실 시절부터 극회활동을 가졌던 송대극회는 그 자립적 창작정신을 이어 1965년 서울송실에서 재학생(이반 교수와 황석영 작가)에 의해 본격적인 창단을 하였습니다. 50년간 꾸준히 정기공연 등을 올리면서도 송실대학교의 중요한 시점마다 동문합동공연을 제작함으로써 대학동아리의 영역을 확장하였습니다. 이렇게 재학생과 졸업생이 합심하여 이룩하는 과정이야말로 우리 총동문회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동문협력문화입니다.

송실대가 지닌 가치는 한국 최초의 4년제 대학으로서 개교 118주년이라는 역사적 토대뿐 아니라, 최근 상위에 랭킹 된, 국·내외 대학평가의 객관적 수치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리 총동문회는 이러한 위상 자체에만 만족하지 않고, 재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힘을 실어주고 졸업 동문들에게는 뿌듯한 모교의 정이 느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동문들의 교류하는 창조적 사랑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모쪼록 송대극회의 50주년 기념 공연의 열정만큼 뜨거운 송실가족들의 관심과 열기 속에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관객으로 오신 송실가족께서는 깊어가는 가을 대학로에서 영원한 청년 윤동주와의 만남을 통해 '나'를 들여다보고 추억을 떠올리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작가의 글



르네상스 송실

이 반(철학 65, 초대 극회장)

군에서 제대하고 복학했다. 아르바이트도 그만두고 학업에 열중하려던 참에 기숙사 내방으로 철학과 1년 후배인 황석영과 영문과 김덕천, 경제과 송최희가 찾아왔다. 대학극회를 만들어 연극하자는 제안이었다. 나는 공부도 해야 하고, 연극은 전혀 모르는 영역이어서 할 수 없다고 했다. 두어 번 거절했는데, 연극하려는 석영이의 열정을 말릴 길이 없었다. 그는 창작회곡 '폐궁으로 돌아오다'를 써오고, 연출로 친구인 극작가 전진호 씨를 소개했다. 전진호 씨의 나이는 우리와 비슷했지만 연극과 희곡에 대한 지식은 우리의 스승이었다. 연기할 여학생이 없었다. 마침 대학신문사에 여기자 두 명이 있었는데 영문과 오이세와 사학과 안성희였다. 두 학생을 설득하여 캐스팅하니 남자연기자 한명이 부족했다. 경제과에 다형 김현승교수님의 차남 문배 군이 재학했는데 그를 설득했다. 총무처 이순배 형이 대본을 프린트해주고 학생처 김충희 형이 도와주었다. 신명훈 선생이 따뜻한 눈으로 보살펴 주기도 했다.

5·16군사혁명 직후라 일체의 학생회비는 없던 시대였다. 연세대 총장을 지낸 고병간 박사님이 재직하던 시대였다. 철학과 윤리담당인 고범서 교수께서 학생처장을 맡고 계셨다.

연극은 기숙사 식당을 극장으로 꾸며 사용했는데 무대에 필요한 각목과 합판은 노량진 미림목재소에서 구입해 메어 날랐다. 장승배기를 지나는데 영문과 이구형 형이 마중 나와 주었다. 그래서 두 번째 등짐을 쉬었다. 어떻게 예산을 충당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막은 올라갔고, 우리는 많은 칭찬을 받았다. 무대는 서울대 미대 친구들이 와서 제작해주고, 조명은 한양대 전기과 학생들이 와서 해주었다. 학교 앞 중국집에서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했다. 연극이 끝나고 채플에 들어 갔더니 학생처 김충희 형이 극회장을 앞으로 나오라고 했다. 고병간 총장이 극회장에게 특별상을 주고 금일봉도 주었다. 금일봉으로 중국집 외상값도 갚고 연출비도 드렸다.

50년 전, 그 겨울 우리는 명동 국립극장과 남산 드라마센터, 충무로 등을 배회하며 연극에 빠졌던 한 계절을 잊지 못해 방향을 했다. 내 방향도 그때 시작되었다.

고대 희랍철학과 미학을 강의하시던 조요한 교수님이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송실극회는 송실의 르네상스를 일으킨다며 대학 캠퍼스 야외에서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를 공연하고 T·S 엘리엇의 '대성당의 살인'을 공연했다. 그때 송실은 르네상스였다.

한편 예술에 대한 열정, 우정, 방향, 사랑 등이 대학가와 우리의 주위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서 허전하다.

송대극회 50주년 기념공연에 참여한 송대극회원들과 대학당국에 감사드린다.

연출의 글



연극의 신비를 처음 알게 해 준 곳 송대극회

곽수정(국문, 83)

1983년, 스무 살 나에게 연극을 처음 겪게 해 준 곳, 연극의 신비를 처음 알게 해 준 곳, 송대극회는 나에게 해준 것이 너무 많다. 이 순간 가슴이 아리다.

이번 작품은 에피소드식 나열로 인해 자칫 주제를 밀고 나가는 힘이 부족할 수 있는 우려가 있지만, 운동주의 삶과 '부끄러움'에 관하여 무대 위 매 순간의 '진실'이 관객에게 '쿵' 닿는 것을 목표로 설계되었다. 운동주의 입체적 성격이 다양한 장면들에서 역동적으로 표현되기를 바랐다.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도 끝나지 않고 우리 앞에서 버티고 있는 한일 간의 문제들, 제국주의에 희생된 과거에 관한 다양한 관점,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참화와 화해에 관한 여지 등등 여전히 복잡한 숙제들이 있지만 재학생, 졸업생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무엇보다 무지한 연출 때문에 고생한, 액팅 코치 숙희와 조연출 동현에게 고맙다고 꼭 말하고 싶다. 모든 업보를 뒤집어쓰고 무소처럼 달려와 준 아름다운 황금실 후배에게, 그리고 이 작품의 원작을 주신 이 반 선생님께도 감사함을 꼭 전하고 싶다. 그리고 '생'의 치열함을 혹독히 치르고 오늘 무대 위에 우뚝 선 우리의 배우들에게 고맙고 사랑한다고 꼭 말하고 싶다.

작품해설

〈하늘, 바람, 별 그리고 학〉, 원작과 각색 사이에서

조보라미(영남대학교 교수)

이반은 함경도 출신의 월남 작가로,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속칭 '아바이 마을'에서 자라났다.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듯 그는 그곳 특유의 말씨와 습속을 살린 분단희곡을 창작했고, 이로써 한국의 분단희곡사에서 매우 독특한 위치를 점한다. 그러나 한편 그의 삶은 기독교를 빼놓고는 설명될 수 없으며, 이반 희곡의 또 다른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종교극(보다 구체적으로는 기독교극)이다.

그런데 이반의 종교극은 성서에 국한하지 않고 인간의 보편적 문제로 소재를 확대하고 있으며 기독교의 독선적 관점에서 벗어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하늘, 바람, 별 그리고 학〉은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반 희곡의 대표작으로, 한일문제를 소재로 하고 있다. 주지하듯 이 극의 제목은 윤동주의 유고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1948)에서 따온 것인데, 이때 '시'를 대체한 '학'은 이 작품에서 핵심적인 의미를 구현한다. 즉, 이것은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실재하는 동상(일부)으로 전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는 상징적 의미를 띠며, '화해'라는 이름으로 이반 희곡에 직접 등장하는 것이다.

화해: 한 소설가의 픽션입니다만 우리는 이제껏 독약에 대해서만 논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 있는 사람을 생체 실험한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악한 행위이고 독약입니다. 그러나 독약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수천, 수만 년간 인간의 도사를 향해 끊임없이 물려오는 바다에 대하여도 주시해야 됩니다. 바다는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씻고 있습니다. 세상을 씻고, 세계를 정화하고 있습니다.

(...)

화해: 변명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대화는 거기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파도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몰려 옵니다. 바다의 인내로 세상을 씻어야 합니다.

위의 인용에서 '화해'는 엔도 슈사쿠의 〈바다와 독약〉을 예로 들며, 여태껏 '독약'에 대해서만 논해 왔으나 이제는 '바다'에 대해 논해야 한다고 말한다. 가해자의 잔악한 행위('독약')를 분명히 잊지 말되, 섬 없이 세상을 씻고 정화하는 '바다'의 존재(화해)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이 가해자의 변명에 불과하다는 반론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변명', 곧 '양심적인 한 작가의 참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렇듯 이반의 희곡 〈하늘, 바람, 별 그리고 학〉은 낯음의 자세로, 대립과 미움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사랑으로 포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이는 어리석음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이반은 타인에 대한 희생적 사랑이라는 기독교적 논리를 제시한다. 〈하늘, 바람, 별 그리고 학〉이 종교극으로 분류되는 것은 이 때문인데, 그 과정에서 이 작품은 내용의 비약과 함께 일반적인 이해의 어려움을 내포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을까. 황금실의 각색은 이반 희곡에서 내용상 커다란 비약을 피하고 작품의 추상적인 부분을 구체화했다. 후쿠오카 형무소에서의 윤동주의 삶을 처음과 끝에 배치하고, '겐조'를 통해 엔도 슈사쿠의 양심을 육체화했으며, 재일본 조선인 '마루'와 일본인 소녀 '아사코'가 평화의 학을 함께 만듦으로써 한국과 일본의 화해 가능성을 가시화한 것 등이 그것이다. 이로써 이반 희곡이 지닌 종교극으로서의 본질적 부분을 맛볼 기회가 사장된 것은 아쉬운 일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 이 작품이 지닌, 사랑과 평화, 화해의 메시지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시놉시스

봄이 저만치 와서 서성이고 있지만 아직은 혹한인 1945년 초, 윤동주는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인권을 저당 잡힌 채 혹독한 생체실험을 당한다. 생명이 다 빠져 나가기 전, 마치 죽음이 예고된 듯 무의식 속에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난다.

그리고 '너의 시가 사람들 마음에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는 벅찬 미션을 부여받는다. 그렇게 해방 6개월을 앞두고 이 세상을 떠난 윤동주는 차마 슬픔과 아픔이 아로새겨진 세상 사람들 곁을 쉽게 떠나지 못하고 여행을 하게 된다.

윤동주는 시간여행을 하며, 치유 받지 못한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도 만나고 이름 없는 이들의 목숨 값으로 욕심을 채우는 위정자 등을 만난다. 이들을 만날수록 그의 괴로움이 깊어진다. 한편 천사는 윤동주를 히로시마의 변두리 마을로 인도한다. 그곳에서 전쟁의 가해자 노릇을 했던 피해자 겐조의사 그리고 그의 딸 아사코와 함께 평화의 학을 만드는 마루를 만나게 되는데...



인 물

픽션 & 논픽션

이 작품은 윤동주의 생애사를 다룬 작품은 아니지만, 시인을 비롯한 4명의 실존인물이 나옵니다.
물론 극의 대부분은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윤동주(1917. 12. 30 - 1945. 2. 16)

1932. 4

용정, 기독교 학교인 은진중학교에 송몽규, 문익환과 함께 입학

1935. 9. 1

평양 송실중학교 3학년 2학기로 편입함.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독서와 시작에 전력을 기울임.

작품 <거리에서>, <공상>, <창공>, <남쪽하늘>과 도시 <조개껍질> 등을 씀

1936. 3

송실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항의하며 자퇴

1941. 12. 27

자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서시 포함)를 출간하려 했으나 주변인들의 만류로 무산

1942. 4. 2

도쿄 릿쿄(立教)대학 문학부 영문과 선포에 입학.

일본으로 넘어온 이후 「쉽게 씌어진 시」 등 이 때 쓴 시 5편을 서울의 친구에게 보내다.

1943. 7

송몽규와 함께 학생독립운동을 이한 모임결성 혐의로 검거, 큐슈 후쿠오카 형무소에 수감

1945. 2. 16.

큐슈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사망

김 용(金龍 윤동주의 어머니. 1891 - 1947)

윤일주(윤동주의 동생 1927. 11. 23 - 1985) 시인, 건축공학과 교수 역임

송몽규(윤동주의 고종사촌. 1917 - 1945. 3.)

위의 네 사람을 제외한 인물들은 모두 가상의 캐릭터입니다.

그 중 겐조 의사는 원작에 언급되어 있는 앤도 슈사쿠의 소설 <바다와 독약>에 나오는 '스구로 의사'로부터 모티브를 따왔는데, 이름이나 성격 출생배경 등 대부분 설정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겐조의 수양딸 아사코와 함께 학을 만드는 조선인 용접공 마루 또한 <바다와 독약>의 화자인 셀러리맨 '나'로부터 모티브를 가져 온 것임을 밝힙니다.

황금실(국문 85, 각색)

Cast



임한성
윤동주 역



송숙희
윤동주 어머니 역



김현우
송몽규 역



이현승
윤일주 역



임경화
노 래
<내 무덤에서 울지 마오 나는 거기 없소>
작 곡
하늘 바람 별 그리고 학 테마
윤동주의 테마



안선후
일본 정치가 역



김희진
일본 정치가의 아내 역



서동현
마루(조선인 용접공) 역
생체실험실 고참의사 역



이지연
마루의 아내 역



김종백
겐조 의사 역



최상원
경찰 역
생체실험실 고참의사 역



손미라
김금주 위안부 할머니 역



박지민
위안부 소녀(김금주) 역
간호원 역



정선혜
위안부 소녀(분이) 역
아사코 역



이상혁
기자 역
생체실험실 고참의사 역



이영선
위안부 소녀(정순) 역



김준형
일본 소년병 역

연습후기

85학번 안선후(정치가)
인생의 반환점을 돌아선 오늘 부연 듯 다가온 당신과의 만남.....
내 남은 나날이 인간으로 살아갈 참회의 오늘이 되리라.

93학번 손미라(위안부 할머니)
가슴이 아리고... 쓰리고... 미안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94학번 이지연(마루의 아내)
한날 추억일 줄 알았던 20년 시공간을 뛰어넘어...
그때와는 또 다른 나를 찾아...

99학번 김종백(겐조)
이 시간이 한 순간 지나갈 것을 알기에 잠들기 싫다.
잠들기 싫어 투정하는 딱풀이처럼..아..잠들기 싫다.

99학번 김희진(정치가의 아내)
그렇게 함께 있는 우리를 보고싶다

01학번 이상혁(기자, 의사)
사사가 모여 역사가 되는데 왜 역사는 사사가 되지 못하는가?

06학번 서동현(마루, 의사)
子曰 “知之者不如好之者, 好之者不如樂之者”

09학번 김현우(송몽규)
에델바이스...

12학번 박지민(위안부 소녀 · 김금주, 간호사)
모두의 가슴에 남은 2015년이 되길!

12학번 임한성(운동주)
큰 작품에 큰 인물을 만난 지난 2달...
말 그대로 희노애애애애!

12학번 최상원(경찰, 의사)
안경알 없는 안경테, 시계알 없는 시계줄.

13학번 이현승(윤일주)
힘든걸 알고도 계속 하게되는 무한루프

14학번 김준형(일본 소년병 · 의사)
모든 말은 무대에서

14학번 정선헌(위안부 소녀 · 정분이, 아사코)
함들었던 소중한 추억!

15학번 이영선(위안부 소녀 · 이정순)
난 나를 놓았다..화이팅!

85학번 황금실(기획 · 각색)
졸업생 동문과 재학생들이 어우러짐.
또 하나의 협력이 열매를 맺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양껏 사랑을 못 주어서 너무 미안합니다.
쓰미마생... 쓰미마생...



정기공연 연보

- 1921년 6월 13일
연흥소인극 <절세영웅 나폴레옹의말로> <대비극 노예의 탑>
- 1923년 7월 7일, 21일
전원극 <우의리행진> <기계간간> <동백꽃> <삼년후>엠편청년회주관
- 1923년 7월 28~29일
<소인연극> 고학생후원회 주관
- 1965년 11월
제1회 <배궁으로 돌아오다> 황석영 작, 이반 기획, 전진호 연출
- 1968년 10월 28일
제2회 <Our Town> Thorn Wild 작, 이태주 연출
- 1969년 10월 10일 / 10월 28~29일
제3회 <의자들> E.이오네스코 작, 고봉인 연출
- 1969년 10월 28~29일
제4회 <The Miracle Worker> William Gibson 작, 고봉인 연출
- 1970년 5월 15일
제5회 <성자의생물> John Millington Synge 작, 한영재 연출
- 1970년 10월 28~29일
제6회 <승부의 결말> 사무엘 베케트 작, 김양기 연출
- 1971년 5월 26일 / 27일 / 28일 / 31일 / 6월 1~2일
제7회 <The Rising of the Moon> Lady Gregory 작, 정종화 연출
- 제7회 <간담목 삽화> 윤조병 작, 주정서 연출
- 제7회 <담배독에 대하여> 안톤 체홉 작, 한영재 연출
- 제7회 <황금단지> 푸라우터스 작, 유근배 연출
- 제7회 <고도를 기다리며> 사무엘 베케트 작, 차현재 연출
- 1971년 11월 4~5일, 11일
제8회 <저격병의 그림자> 산 오케이스 작, 차현재 연출
- 1972년 5월 25~27일
제9회 <생일 파티> 헤롤드 핀터 작, 한영재 연출
- 1973년 5월 21~23일
제10회 <마시미의 결혼> F.뒤렌마트 작, 고봉인 연출
- 1973년 10월 25~27일
제11회 <밤> h.핀터 작, <기도>(소극장) f.아라발 작, 김득남 기획, 차현재 연출
- 1974년 5월 25~27일
제12회 <경의 사람들> a.까뮈 작, 정종화 연출
- 1975년 6월 9~10일, 12~13일
제13회 <잔학자의 산책> <노스토펬스키라는 이름의 가짜> 김홍수 기획, 안홍순 연출
- 1975년 10월 29~31일
제14회 <비어만과 방화범> 맥스 프리시 작, 김기열 기획, 안홍순 연출
- 1976년 6월 1~3일
제15회 <인터뷰> 장 클로드 반 이테리 작, 김기남 기획, 김득남 연출
- 1976년 10월 25~28일
제16회 <행> 장 클로드 반 이테리 작, 김영덕 연출
- 1977년 6월 15~18일
제17회 <EQUUS> 피터셰퍼 작, 박정식 기획, 김영덕 연출
- 1977년 10월 10~13일
제18회 <EQUUS> 피터셰퍼 작, 방영철 기획, 김영덕 연출
- 1978년 6월 5~6일
제19회 <Counter point> Olov Hartman 작, 방영철 기획, 김영철 연출
- 1978년 10월 24일
제20회 <EQUUS> 피터셰퍼 작(대학연극축제참가) 만승기 기획, 김영덕 연출
- 1979년 6월 18~19일
제21회 <한강 2979> 김영덕 작, 정재호 기획, 이병국 연출
- 1979년 9월 29일, 10월 2일
제22회 <초분> 오태식 작, 이정일 기획, 황정순 연출
- 1980년 11월 5~6일
제23회 <아니, 이 생명은 누구의 것인가?> 브라이언 클라크 작, 엄세범 기획, 박양권 연출
- 1981년 6월 12~13일
제24회 <노부인의 방문> F. 뒤렌마트 작, 이종규 기획, 황정순 연출
- 1981년 11월 12~14일
제25회 <달맞이꽃> 김병중 작, 전석근 기획, 황정순 연출
- 1982년 5월 12~13일
제26회 <카리콜라> A.까뮈 작, 윤태웅 기획, 지 숙 연출
- 1982년 10월 7~8일
제27회 <세도우 박스> M.크리스토퍼 작, 전희식 기획, 황정순 연출
- 1983년 6월 20~21일
제28회 <마시미의 결혼> F.뒤렌마트 작, 전희식 기획, 김영덕 연출
- 1983년 10월 7~8일
제29회 <트레버> 존 보넬 작, 이원우 기획, 오정일 연출
- 1984년 5월 24~26일
제30회 <도가니> A.밀러, 이종규·엄세범 기획, 오세환 연출
- 1984년 10월 11~13일
제31회 <벤전소> 존 스톨텐버그 작, 차세훈 기획, 이용섭 연출

- 1985년 5월 9~11일
제32회 <빈민굴> 막심 고르끼 작, 김상현 기획, 이용섭 연출
- 1985년 11월 21일, 23일
제33회 <신부님 우리 신부님> 조반니 프레스키 작, 하승민 기획, 송기범 연출
- 1986년 6월 4~6일
제34회 <EQUUS> 피터셰퍼 작, 허성무 기획, 하승민 연출
- 1986년 9월 11~13일
제35회 <코볼소> E.이오네스코 작, 안상준 기획, 송기범 연출
- 1987년 6월 3~5일
제36회 <한 여름 밤의 꿈> 셰익스피어 작, 권형진·이준석 기획, 오정일 연출
- 1987년 9월 10~12일
제37회 <오해> A.까뮈 작, 오정일 기획, 박경근 연출
- 1988년 6월 2~4일
제38회 <세 번은 짧게 세 번은 길게> 아이러링 작, 이충일 기획, 오정일 연출
- 1988년 10월 6~8일
제39회 <안내냐? 못내냐!> 다리오 포 작, 권태수 기획, 송근호 연출
- 1989년 5월 25~27일
제40회 <농녀> 윤조병 작, 천승범 기획, 안선후 연출
- 1989년 10월 10일 / 17~18일
제41회 <대성당의 살인> T.S. ELIOT 작, 오정일 기획, 이반 연출
- 1990년 5월 24~26일
제42회 <안티코네> 장 아누이 작, 권태수 기획, 이준석 연출
- 1990년 8월 30~9월 1일
제43회 <한씨연대기> 황석영 작, 천승범 기획, 이영민 연출
- 1991년 5월 30~6월 1일
제44회 <생일파티> H.핀터 작, 남재우 기획, 권승혜 연출
- 1991년 9월 5~7일
제45회 <날개> 이상 작, 양현준 기획, 권형진 연출
- 1992년 3월 19~21일
제46회 <우리 날을 불었다> 김상열 작, 임경화·정현용 기획, 홍은영 연출
- 1992년 9월 17~19일
제47회 <금관의 예수> 김지하 작, 홍석환 기획, 송근호 연출
- 1993년 5월 20~22일
제48회 <세일죽음즈매의 죽음> A.밀러 작, 황명식 기획, 박원상 연출
- 1993년 10월 21~23일
제49회 <텍사스> 김상수 작, 소장호·이명성 기획, 박원상 연출
- 1994년 5월 26~28일
제50회 <굿 닥터> 닐 사이먼 작, 정석용 기획, 소장호 연출
- 1994년 9월 29~10월 1일
제51회 <안티코네> 소포클레스 작, 소장호 기획, 박원상 연출
- 1995년 5월 25~27일
제52회 <상자속의여자> 김윤미 작, 현승욱 기획, 류성한 연출
- 1995년 11월 26~28일
제53회 <나의라임오렌지나무> 바스콘셀로스 작, 김은성 기획, 남재우 연출
- 1996년 3월 7~9일
제54회 <자살> 김현목 작, 한석은 기획, 손미라 연출
- 1996년 9월 5~7일
제55회 <육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테네시 윌리엄 작, 조태희 기획, 이충희 연출
- 1997년 3월 13~15일
제56회 <우리 읍내> 손본 와일더 작, 신하영 기획, 서수경 연출
- 1997년 10월 8~9일 / 16일 / 17일
제57회 <개고 100주년동문합동> <대성당의 살인> T.S. ELIOT 작, 엄세범 기획, 정종화 연출
- 1998년 3월 18~20일
제58회 <살인 놀이> 이오네스코 작, 조태희 기획, 권내리, 이정미 연출
- 1998년 11월 26~28일
제59회 <물고기축제> 유미리 작, 윤장한 기획, 조태희 연출
- 1999년 3월 11~13일
제60회 <사람은 저마다 모두 색맹입니다> 이정원 작, 이운재 기획, 이경희 연출
- 1999년 9월 2~4일
제61회 <세상 낚기> 이정원 작, 이정원 연출
- 2000년 5월 4~6일
제62회 <아름다운 시인> 장진 작, 이운재 기획, 이경희 연출
- 2000년 8월 31~9월 1~2일
제63회 <소나기> 황순원 작, 김귀하 기획, 박정국 연출
- 2001년 3월 29~31일
제64회 <인간에 대한 예의> 사정훈 작, 이육재 기획, 사정훈 연출
- 2001년 9월 6~8일
제65회 <바라보다 달아나다> 김희진 작, 서정우 기획, 김희진 연출
- 2002년 3월 13~15일
제66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괴테 작, 김명걸 기획, 김명진 연출
- 2003년 3월 6~8일
제67회 <옥수동에서인 압구정동이 보인다> 김태수 작, 이마나 기획, 윤장한 연출
- 2003년 9월 4~6일
제68회 <고도를 기다리다 보면> 사무엘 베케트 작, 김성은 기획, 최연경 연출

- 2004년 6월 3~5일
제69회 <평화씨> 아리스토파네스 작, 김성은 기획, 강혜정 연출
- 2005년 3월 2~4일
제70회 <마술가계> 이상범 작, 김성은 기획, 이육재 연출
- 2005년 10월 6~8일
제71회 <하바쿠샤> 홍가이 작, 정한길 기획, 한재진 연출
- 2006년 6월 1~3일
제72회 <청춘예찬> 박근영 작, 이고운 기획, 이육재 연출
- 2006년 9월 21~23일
제73회 <사랑에 관한 알몸가지 소모> 위성신 작, 김병현 기획, 김승태 연출
- 2007년 5월 31~6월 1~2일
제74회 <굿 닥터> 닐 사이먼 작, 신영준 기획, 한재진 연출
- 2007년 9월 6~8일
제75회 <개고 110주년동문합동> <천년제국 1623년> 차근호 작, 이준석·권형진·양현준·이명성·윤태웅 기획, 박경근 연출
- 2008년 11월 27~29일
제76회 <Open Couple> 다리오 포 작, 이보라 기획, 김명희 연출
- 2010년 11월 18~20일
제77회 <일요일의 불청객> 아근삼 작, 김현우 기획, 서동현 연출
- 2011년 5월 26~27일
제78회 <같이, 미치다> 닐 사이먼, 서현철, 안돈 체홉 작, 김상현 기획, 김진욱 연출
- 2011년 11월 24~26일
제79회 <산죽 학생회관 개관 기념공연> <술집 돌아오지 않는 햄릿> 위성신 작, 이준석·소장호·이명성·양명호·이현종·홍창교 기획, 위성신 연출
- 2012년 5월 31~6월 2일
제80회 <카드에 없는 카드> 이정문 작, 임윤진·조운재 기획, 이정문 연출
- 2012년 12월 6~8일
제81회 <소팔로비치 유랑극단> 류보미르 시모비치 작, 최한나·윤희슬 기획, 정성원 연출
- 2013년 5월 23~25일
제82회 <분장실> 시미즈 쿠니오 작, 호혜인 기획, 김지영 연출
- 2013년 10월 15~19일
제83회 <운전배우기> 폴라 보글 작, 윤미나·김동욱·고세이 기획, 정성원 연출
- 2014년 5월 29~31일
제84회 <낙오자를 위하여> 김현목 작, 오광규·김서우 기획, 김승현 연출
- 2014년 11월 13~15일
제85회 <책플런, 지팡이를 잃어버리다> 서현철 작, 김연교 기획, 박희진 연출
- 2015년 5월 21~23일
제86회 <맨 끝줄 소년> Juan Mayorga 작, 임현호 기획, 김동환 연출

채플공연 연보

- 1985년 9월
제1회 <연인자와 목수>, 엄세범 기획, 이용섭 연출
- 1986년 10월
제2회 <20세기의 그리스도>, 윤태웅 기획, 이준석 연출
- 1990년 10월
제3회 <공포를 넘어서>, 이영민 기획, 이준석 연출
- 1993년 10월
제4회 <연인자와 목수>, 소장호 기획, 박원상 연출
- 1996년 10월
제5회 <공포를 넘어서>, 이명성 기획, 남재우 연출
- 2006년 10월
제6회 <사랑에 관한 다섯가지 소모> 위성신 작, 김병현 기획, 김승태 연출
- 2007년 10월 22~25일
제7회 <칼렌의고백> 김종철 작, 박용혁 기획, 이육재 연출
- 2008년 9월 28~10월 2일
제8회 <결혼> 이강백 작, 장한림 기획, 김성훈 연출
- 2009년 9월 28~10월 1일
제9회 <해피니스의 춤> 정다운 작, 정한길 기획, 정다운 연출
- 2010년 10월 25~28일
제10회 <다섯번째 자살> 김수형 작, 이호림 기획, 유병기 연출
- 2012년 10월 29~11월 1일
제11회 <도덕적 도둑> 다리오 포 작, 원종진 기획, 오광규 연출

워크샵 공연 연보

- 1985년 8월
<꿈없는 아리아> 에드나 St. 밀레이 작, 하승민 연출
- 1991년 10월 7일
<왕> 이준석 작, 남재우 기획, 이준석 연출

워크샵 공연 연보

- 1993년 2월
<재목미상> 연출 박원상
- 2010년 6월 5일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괴테 작, <가솔소녀 우주여행기> 김지용 작, 유병기 기획, 김운배, 서동현, 김진욱 연출
- 2010년 11월 29일
<서론 사람들> 장진 작, 최상원·박희진 연출
- <에쿠우스> 피터 셰퍼 작, 김동환 연출
- 2015년 6월 27일
<클로저> 패트리 마버 작, 김운배 연출

신입생 환영공연 연보

- 1975년 3월 10~12일
제1회 <악마와 톱> W. 에이닝 작, 김홍수 연출
- 1976년 10월 29~31일
제2회 <보석과 연인> 이강백 작, 김득남 연출
- 1977년 3월 16~18일
제3회 <출발> 윤대상 작, 정경호 기획, 안홍순 연출
- 1979년 3월 29~30일
제4회 <햇> 이강백 작, 한철 기획, 정재호 연출
- 1981년 3월 30~31일
제5회 <아리아 다 카포> E.ST.MILLAY 작, 이영민 기획, 오세환 연출
- 1982년 3월 24~25일
제6회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김용락 작, 최시영 기획, 이용섭 연출
- 1983년 4월 16~17일
제7회 <블랙 코미디> 블랙 셰퍼 작, 전희식 기획, 홍려석 연출
- 1984년 3월 8~9일
제8회 <개인의 소공간> 호랄드 작, 차세훈 기획, 김인보 연출
- 1985년 7월 20일
제9회 <아리아 다 카포> E.ST.MILLAY 작, 이영민 기획, 하승민 연출
- 1986년 3월 17~19일
제10회 <인형의 집> 헨리 업센 작, 이강일 기획, 김정은·위성신 연출
- 1987년 3월 12~14일
제11회 <따러운 손> 샤르트르 작, 백운형 기획, 박경근 연출
- 1988년 3월 24~26일
제12회 <불가불가> 이현화 작, 천승범 기획, 황금실 연출
- 1989년 3월 23~25일
제13회 <흑인 수녀를 위한 진혼곡> 까뮈 작, 홍덕태 기획, 박경근 연출
- 1990년 3월 8~10일
제14회 <우물증 환자> 보토스트로우 작, 이영민·안상준 기획, 박해숙·백로라 연출
- 1991년 3월 7~9일
제15회 <노크노크> 줄스파이터 작, 정현용 기획, 이병준 연출
- 1992년 5월 28~30일
제16회 <공 먹고 물 마시고> 어근삼 작, 김상겸 기획, 양현준 연출
- 1993년 3월 11~13일
제17회 <메두사> 조지 케이지 작, 소장호 기획, 박원상 연출
- 1994년 3월 10~12일
제18회 <어린이왕자> 생텍쥐페리 작, 이명성 기획, 홍석환 연출
- 1995년 3월 9~11일
제19회 <봄 날> 이강백 작, 양명호 기획, 정석용 연출
- 1996년 5월 30~6월 1일
제20회 <울어라 뱀고둥아> 성준기 작, 정재훈 기획, 김형근 연출
- 1997년 5월 29~31일
제21회 <로물루스 대제> 뒤렌마트 작, 박정국 기획, 정석용 연출
- 1998년 6월 5~7일
제22회 <결혼> 이강백 작, 강길호, 안병진 기획, 류민주 연출
- 1999년 6월 3~5일
제23회 <자매> 라두아나야 작, 홍신태 기획, 권내리 연출
- 2000년 11월 16~18일
제24회 <도덕적 도둑> 다리오 포 작, 김명진 기획, 강길호 연출
- 2001년 5월 30~6월 1일
제25회 <노부인의 방문> 뒤렌마트 작, 강혜정 기획, 서정우 연출
- 2003년 5월 29~31일
제26회 <텍시드러번> 장진 작, 김종백 기획, 한주영 연출
- 2008년 6월 4~7일
제27회 <한여름밤의 꿈> 셰익스피어 작, 박한경 기획, 이원진 연출
- 2009년 5월 28~30일
제28회 <미미의 집> 정다운 작, 정성원 기획, 정다운 연출
- 2010년 3월 18~20일
제29회 <웃음의 대학> 미타니 코우키 작, 서동현 기획, 정현승 연출

제작에 참여하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졸업생

제작고문 허성무, 이준석, 황명식
각색·기획 황금실
연출 박수정
기술감독 이종규
액팅코치 송숙희
조연출 서동현
무대 안선후, 이준석, 이명성
음악 임경화
의상 한재진
홍보 양명호, 한석운

재학생

극회장 11 김영근
기획 12 박지민
조명 14 심현우
음향 11 김정은
영상 06 김윤배 09 이경문 12 김우람
홍보 11 김영근 14신 수영
진행스텝 11 장영주 12 정수현 13 고세이
13 박하연 14 김재욱 15 오대준
무대세팅 14 김도현 11 박종빈
도움 11 박희진 14 최예솔 14 고민정
14 김세희 15 이주희 15 박준범

송대극회 50주년 기념 공연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송대극회 동문 일동 -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후원과 홍보로 이번 공연에 힘을 실어주신 송실대학교 총동문화장님과 직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dacap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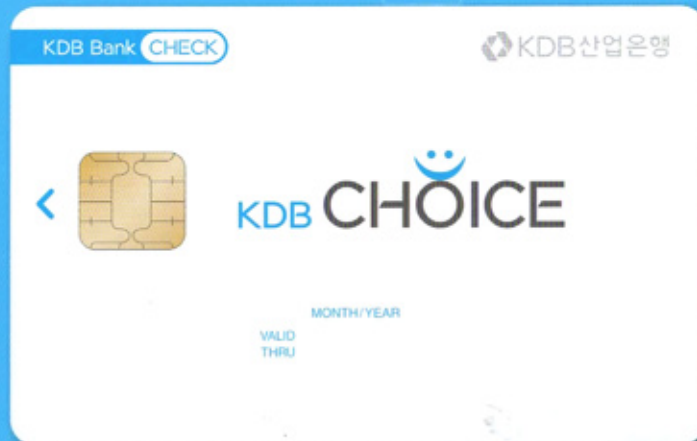
Dr. HASKIN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1646 사이언스파크 208
고객상담실. 080-001-5131
www.drhaskin.co.kr

출시

내가 고른 혜택

KDB CHOICE 체크카드



10대 주거업종 중

2개 혜택업종
직접 선택

선택한 혜택업종에
속하는

전가맹점
5% 캐시백
(통합캐시백한도 내)

전월실적과 관계 없이

누구에게나
1천원
캐시백한도

10대
주거업종



대형할인점



온라인쇼핑



백화점



병원/약국



숙박



슈퍼



통신



스포츠/레저



홈쇼핑



커피

금융서비스

시중은행 자동화기기 출금·이체 수수료 면제(결제계좌의 예금상품 조건에 따름)

- KDB Hi 입출금통장은 조건 없이 면제

- KDBdream Account 등은 입금 또는 평잔 실적에 따라 면제

KDB CHOICE
체크카드 출시기념
캐시백 이벤트

이벤트 카드 | KDB Choice 체크카드

이벤트 참여 | 10만원 이상 사용 고객 자동응모(이벤트 기간 중 금액 합산)

제 공 혜 택 | 1만원 캐시백(2,000명 추첨)

유의사항
• 이벤트 기간 중 KDB Choice 체크카드를 해지한 경우 이벤트 대상에서 제외
• 본인회원에 한해 제공하며 가족카드 이용금액은 합산하지 않음
• 2,000명 미만 고객이 응모된 경우 추첨없이 당첨

* 당첨자는 12월말 당행 홈페이지(www.KDB.c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2016년 1월초 캐시백 예정

이벤트 기간 | 2015. 10. 15 ~ 12. 20

※ 서비스 제공조건 및 한도 등 자세한 사항은 당행 홈페이지(www.KDB.co.kr) 또는 상품안내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